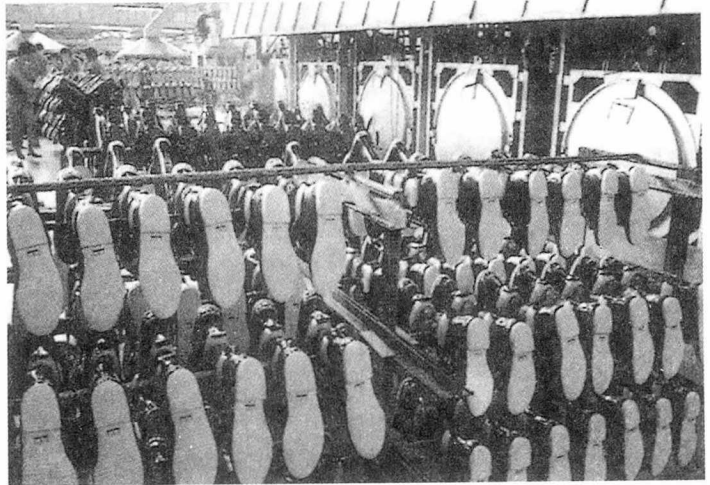


화재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취재/조태엽 <홍보부>

항도 부산하면 용두산공원과 영도대교, 해운대 등의 명소를 생각하게 하며, 산업시설로는 목재, 조선, 신발제조업 등을 손꼽게 된다. 특히 신발제조업은 일찌감치 우리나라 수출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하겠다. 이번 호에는 부산지역에 많은 신발제조공장중 불의의 화재를 당했으나 전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재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영화학(주)를 소개한다.



● 개요

부영화학은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75-26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1982년 4월에 창설되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본공장 등은 3층건물로서 1층은 사무실 및 원부자재창고, 2층은 제화, 3층은 봉제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업종은 신발, 부품, 특수고무 제조로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인 OEM에 의해 전량 수출되고 있다. 주문자인 미국의 '나이키'사로 부터 품질 및 생산방식 모두 호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기술혁신과 노사관계가 지극히 원만한 모범업체이다.

3개의 조립라인과 25개 봉제라인을 운영하는 본 공장은 종업원 1천3백명에 연간매출액은 2백72억9천만원 정도이다.

● 화재발생 경위

사고는 지난 6월 25일 07시경 본공장 1층 재단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시간은 작업개시 1시간전 상황으로서 일찍 출근한 이진숙씨와 보일러공 김덕기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보일러 가동 개시 약5분후 매캐한 매연냄새를 맡고 이상히 생각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재단실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발견, 즉시 고함을 지르며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이때 이진숙씨의 연락을 받은 경비담당 구영규씨는 즉시 관할소방서에 신고한 후 소화기를 들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진화작업에 합류하였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있었고 고무와 피혁이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로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 피해상황 및 보상

발생된 화재는 순식간에 전공장으로 번져나가 공장건물의 절반이상이 붕괴되고 기계 및 동산의 대부분이 소실된 후에야 진화되었다고 한다.

이때 공장내에는 신발제조용 각종 재봉기 5백여대, 재단기 36대, 프레스 등의 기계류외에 각종 원부자재, 원단 및 갑피, sole 등의 반제품과 완제품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 사고로 각종 기계류와 동산이 완전 소실 또는 훼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협회는 화재즉시 현장을 조사한 후 손해부위를 세부적으로 가려

이의 정상복구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출, 우선 가지급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한후 나머지 보험금 7억9천9백80여만원을 지급했다.

부영화학(주)는 본협회와 89년 10월 건물 및 기계를 보험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 14억5천4백97만원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 이번에 화재를 당한 건물 1700평, 기계 60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 복구 후

부영상사는 지급보험금을 수령 즉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들어가 현재 80%정도의 공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9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 공급이 지연되어 생각지도 않던 난관이 하나 더 생겼으나 보험금으로 복구가 가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신축공장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전반에 걸쳐 화재예방대책에 최선을 두었다고 한다.

전원차단으로 무용지물이 됐던 소화전의 비상전원을 별도로 확보중이며 각종 전기배선은 금속관공사로 마무리하고 있고, 충분한 소화수 확보를 위해 규정 이상의 물탱크를 확보하고 옥내소화전의 배치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한

다. 또한 연소차단을 위해 각 층별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 방화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내장재를 불연재료로 지정했고, 보다 넓은 통로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것이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소방교육이라고 한다. 평생 일터로서,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직장임을 인식시켜 불조심의 생활화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물론 철저한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화재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고로 여러가지 좋은 교훈을 얻었다는 이 전무는 『일부보험이므로 전액보상받지 못한 손실, 보험기간중 신규구입한 기계류에 대한 화재보험 미가입, 공장

전소로 가동중지에 따른 각종 손실 등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던 점을 다음 보험계약때에는 모두 반영시켜야겠다』면서 특히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대책역시 중요하더라고 한다.

대부분의 화재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영주의 무관심에 의해 방치된 소방시설이나 형식적인 소방교육의 결과 재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아왔다. 동절기를 맞아 잠시 소홀한 틈을 타고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가 방화관리책임자라는 인식을 함께 할때 우리주변에서 인재에 의한 화재는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